



정보통신과 예의

손봉호 /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개인 홈페이지 방명록에 가끔 욕설을 잔뜩 써 놓고 가는 불청객이 있다. 영화 '거짓말'에 왜 시비를 거느냐, 도덕운동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이란 등 내가 하는 사회운동이나 펴는 주장이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끔 점잖은 말로 항의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지만 대부분은 욕설로 자신들의 불만을 토해 놓는다. 자기 의견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능력이 없는지, 아니면 그렇게 욕을 해야 속이 풀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높은 수준의 성숙도를 가진 사람들 같지는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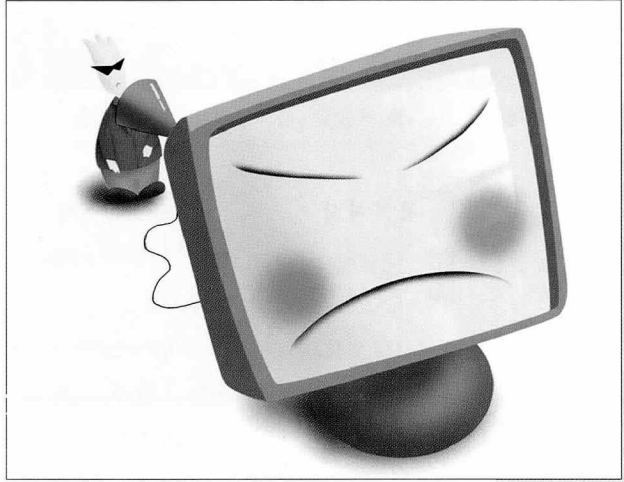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메일 주소를 남기거나 본명을 밝히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 얼굴 앞에서는 그렇게 욕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자기 정체성이 드러나면 하지 못할 말을 숨어서 하는, 말하자면, 좀 비겁한 사람들이다. 서양에서는 그런 비겁함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나 우리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비겁하다는 생각도 강하지 않거나 비겁한 것이 그렇게 나쁘다는 인식도 별로 없다. 그것은 아마도 인격적인 신을 믿는 기독교 전통과 그런 신을 인정하지 않는 유교 문화의 차이 때문이 아닌가 한다. 아무래도 '마음 속의 경찰' (인격적인 신)이 있어 모든 것을 살핀다고 믿으면 혼자 있더라도 말이나 생각에 조심이 갈 것이다.

사실 우리 나라에도 신독(慎獨)을 중요한 교양으로 간주하는 전통이 있다. 즉, 혼자 있을 때도 도리에 어긋나지 않게 언동을 삼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기 때문에 언동을 삼가는 서양인의 교양보다 달성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개인적 수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유난히도 얼굴을 이는 사이의 체면을 중요시하는 우리 문화에서 신독에 철저하려면 보통 이상의 절제와 반성, 그리고 자존심이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자기가 자기의 생각, 말, 행동을 냉정하게 살피고, 남에게 부끄러울 정도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자신의 자존심에 어긋난다고 생각할 수 있어야 가능한 덕목이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오늘 우리 사회에는 신에 대한 두려움도, 비겁함을 역겨워하는 자존심도 없는 하급 인간들이 너무 많다. 다른 사람의 면전에서 온갖 아부를 다 하고 점잖은 척 하면서도 얼굴이 드러나지 않으면 온갖 욕설을 다 퍼붓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도, 그 이중성을 부끄러워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한 실례를 미안하게 생각지 않는 것이다. 신독을 기리는 아름다운 전통은 과거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데 그런 것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조차 찾아보기 힘들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더욱 적다. 그런데, 그렇게 교양수준이 낮아도 글쓰는 것을 배우고 정보통신 기술은 익히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다. 인격적 성숙도는 유치한 체로 남아 있어도 컴퓨터, 인터넷에는 도사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이다. 비도덕적인 해킹 전문가를 컴퓨터 회사들이 서로 모셔가려고 하는 사실이 그런 상황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절도범을 소방대원으로, 소매치기를 국가 정보원 직원으로, 깡패를 경찰로 채용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그런데도 기술만 발전하고 돈 버는 데 효율적이기만 하면 윤리, 예의 따위는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사고방식이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기술문명이 가져다 준 가장 심각한 문제이고, 특히 오늘날의 정보통신 기술의 문제라 할 수 있다. 몇

년 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원장이라 하여 한 정보통신 관계 시민단체로부터 '정보통신발전의 걸림돌' 이란 '명예' 를 얻은 일이 있는데, 오늘 날 우리 나라 정보통신계의 분위기를 대변하는 것이 아닌가 걱정된다.

통신이란 근본적으로 인간과 인간간의 의사소통이고, 거기에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아무리 훌륭하고 유용한 정보라도 기본적인 예의에 어긋나게 전달하는 것은 역기능을 가져온다. 교수가 아무리 새롭고 유용한 지식을 학생들에게 전달하더라도 학생들의 인격을 모독하면서 욕설로 강의하면 지식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외에도 많은 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다. 그러므로 교수를 채용할 때 그 학문적 능력 못지 않게 그 인격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정보통신도 인간간의 의사전달인 만큼 그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예의니, 도덕이니 하는 따위의



의 것은 다 견어치우고 사람들의 이기욕과 호기심을 이용하여 돈을 벌도록 만들어야 정보통신이 진흥된다는 태도는 이미 낡은 것으로 판명된 인간관에 근거한 것이고 궁극적으로 반사회적이다. 정보통신 기술도 발달하고 이용자도 많아질지 모르지만 인간관계가 나빠지고 사회의 건전한 질서가 깨어질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이익보다는 손해를 끼치고 만다.

정보통신 관계자들이 스스로 성숙해져서 기본적인 예의와 질서를 지켜 준다면 그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남의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욕설이나 퍼붓는 것이 버릇이 되고 그런 것이 정보사회의 문화의 일부로 정착되어 버리면 그것을 고치기는 매우 어렵다. 피상적인 낙관론자는 시간이 흐르면 사람들이 잘못을 깨닫고 스스로 고칠 것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좋은 문화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며, 잘못된 문화를 고치는 것은 그 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을 모르는데서 하는 착각이다. 잘못 형성된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물 정도로 많은 희생자를 만들어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 그대로 내버려두면 다 잘될 것이란 주장은 매우 무책임한 생각이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네티즌들이 자정운동을 벌이는 것이다. 케케묵은 예의와 도덕을 분할 시키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다른 사람의 기본권리와 인격적 권위를 존중하는 최소한의 예의와 도덕은 지키는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것을 여기는 자들을 왕따시키지 않으면 모든 네티즌들이 도매금으로 욕을 먹고 수준 낮은 인간들이란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다.

정보통신 기술개발도 중요하고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것도 좋은 일이다. 그러나 기본적인 예의와 도덕을 지키는 운동도 병행되어야 한다. 잘못된 기술은 고치기 쉬우나, 잘못 길들여진 버릇은 고치기가 매우 어렵고 특히 한 집단의 문화로 정착된 것은 거의 고칠 수 없다는 사실을 정보통신 관계자들은 심각하게 감안해야 할 것이다.